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6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너는 누구냐
2. 법정 스님 편지
눈이 내리고 있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행복의 비결 4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파멸 3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여환해탈을 얻었을 따름이라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향기로운 말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찢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6월 1일 발행, 통권 340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너는 누구냐

감기를 치르고 났더니 맛과 냄새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여 먹었지만 간이 짠지 싱거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대로 맑은 아침, 건너 숲에서 우는 뾰꾸기 소리를 들으면서 광주 한국제다에서 보내온 핫차 ‘감로甘露’를 마시니 차 향기만은 조금 알 것 같았다.

어제 담가 놓은 속옷을 개울물에 빨아 뒤꼍 빨랫줄에 널고, 쌀 항아리 정리하여 흘린 난알들을 새들 먹이로 현식대 위에 놓아 주었다. 장에서 사 온 고추모와 케일을 세 두렁에 나누어 심었다. 5월 하순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라 일부러 느지막이 심은 것이다.

오두막을 비운 사이 처마 끝에 매달아 놓은 풍경을 어느 손이 떼어 갔다. 짐승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꼭 그 자취를 남긴다. 바다가 먼 산골이라 생선 대신 풍경에 매달린 물고기라도 떼어다 삶아 먹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을 했는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전 같으면 없어진 풍경을 다시 구해다가 매달아 놓을 텐데, 이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낸다. 풍경 소리 없는 적막의 상태도 즐길 만하다.

엿그제부터 모란이 핀다. 아랫녘에서는 자취도 없이 벌써 지고 말았는데 이 산중에서는 장미의 계절인 6월에야 모란이 핀다. 지대가 높은 곳이라 그러는지 꽃 빛깔이 아주 투명하다. 늦추위와 미친바람에 시달리면서도 꽃을 피운 그 모습이 기특하고 애처롭게 여겨졌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처’라는 용어다. 입만 벌리면 부처가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하는 말로 귀에 못이 박였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장바닥에서 수염이 텃수룩하고 눈빛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웬 사내가 나를 보더니 불쑥 물었다.

“스님, 뭘 좀 물어봅시다.”

“뭘데?”

그는 나를 뻔히 보더니 내뱉듯 말했다.

“부처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내뱉듯 즉석에서 대꾸를 했다.

“이렇게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는 어릿어릿 더 말이 없었다.

헛눈을 팔지 말게. 그대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를 찾지 말게.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일 때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인이다. 세속에 살면서도 그 세속적인 것에 물들거나 얽매이지 않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일 수 있다. 개체인 그대가 전체인 그대로 탈바꿈하면,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시시콜콜한 일상의 늪에서 훌쩍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착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천국을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지어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即心即佛)’라 하고, ‘마음 밖에 따로 부처는 없다(心外無佛)’고 말한 것이다.

선종禪宗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6조 혜능慧能(638~713)과 마조 도일馬祖道一(709~788)이다. 마조의 흡인력은 대단해서 그 문하에서 선의 꽃이 열매를 맺게 된다. 마조는 어려서 출가하여 스님이 된

후 남악산으로 들어가 열심히 참선을 했다. 그때 회양 선사가 남악산 반야사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었는데, 마조를 보는 순간 그가 큰 그릇임을 알아차린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묻는다.

“너는 거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제자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좌선합니다.”

“좌선을 해서 무엇 하게?”

“부처가 되려고 좌선합니다.”

이튿날 스승은 제자가 좌선하고 있는 그 앞에서 벽돌을 득득 돌에 갈았다. 제자는 궁금해서 물었다.

“무엇 하려고 벽돌을 가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까 하고.”

“아니,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다니요?”

이때 스승은 정색을 하고 말한다.

“그래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될 줄 아는가?”

이 말에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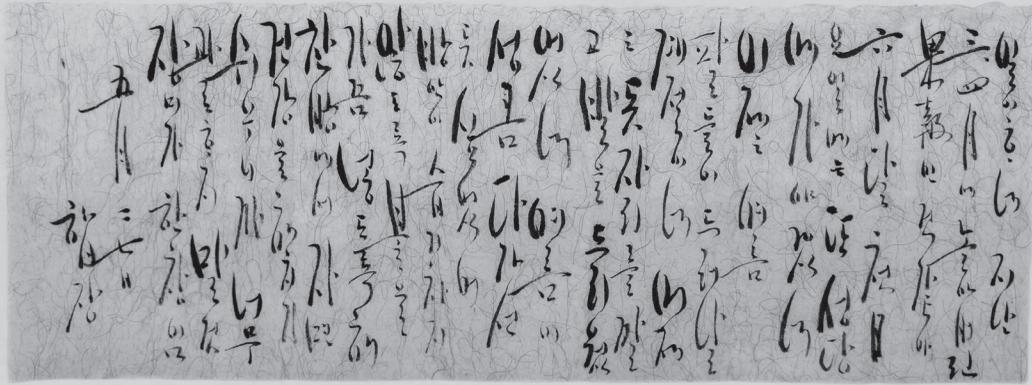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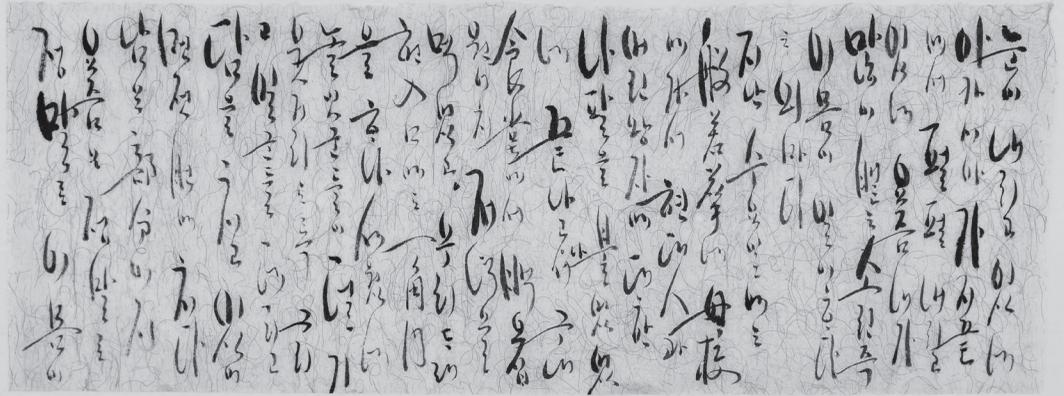
“소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상관없는 것이며, 부처는 한군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없어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것이 선이지!”

이 가르침에 제자는 마음이 열렸다. 스승에게 예배드린 다음 다시 물었다.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집착이 없는 삼매(無相三昧)’에 들 수 있습니까?”

“마음의 지혜를 가꾸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고,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다행히 너는 내 가르침을 받기에 알맞은 인연을 갖추었으니 곧 도를 보게 될 것이다.” 1995

2. 법정 스님 편지



눈이 내리고 있네. 아카시아 가지 끝에서 펄펄 내리고 있네.

요즘 내가 많이 뺏는 소린즉 이 몸이 일이하다는 외마디.

지난 수요일에는 般若華네 母校에 가서 현대인과 어린 왕자에 대한 나팔을 불었었네. 끝나고 나서 구내食堂에서 백오십 원어치 저녁을 먹었고.

우리 다래헌 入口에도 一角門을 하나 세웠네. 놀잇군들이 털 기웃거리도록, 그리고 일군들 데리고 담을 치고 있어. 먼젓번에 치다 남은 部分이지.

요즘은 정말로 정말로 이 몸이 일이하네.

지난 三, 四월에 놀아 버린 果報인 것 같아.

六月달 첫 日요일에는 또 성당에 가야겠네.

이제는 여름. 팔들이 드러날 계절이네.

어제는 뚫자리를 깔고 발을 드리웠었네.

여름이 성큼 다가선 듯싶었어.

방 안이 습기 차지 않도록 불을 가끔 넣도록 해.

찬 방에서 자면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까.

너무 과로하지 말 것.

장미가 한창임.

五月 二七日

합장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반아화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행복의 비결 4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또 진정한 행복의 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스러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원한과 고뇌와 탐욕, 이걸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늘 원한 속에서, 고뇌 속에서, 탐욕 속에서 살기 마련인데, 그로부터 벗어나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얽힘에서 벗어남은 가장 큰 안락이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기초예요. 건강이 있어야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신은 멀쩡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면 넉넉한 겁니다. 부자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남이 안 가진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는 늘 가난한 사람이예요.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예요.

“얽힘에서 벗어남은 가장 큰 안락이다.”
얽힘에서 벗어나는 건 해탈 열반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고 창조적이고 이웃과 덕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말짱한 육신을 가지고도 무가치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는 생각에 갇혀 가지고 두고두고 스스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멍이 들고 가시가 돋치게 돼요.

꽃들을 보세요. 오늘 핀 꽃은 어제 꽃이 아닙니다. 금년에 핀 꽃은 작년엔 본 그 꽃이 아니예요. 하루하루 새 모습이에요. 세포는 늘 존재하지 않는대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세포는 늘 죽고 새로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생각만 늘 굳어 있다고. 이미 지나 버린

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 생각 크게 돌이켜서 따뜻하고 향기로운 본래의 자기 가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만나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불행한 응어리를 풀어 버리지 않으면 내생에까지 연장이 돼요. 오늘로써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돼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한 물건도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에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요. 그걸 털어내야 돼요.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삶은 무익합니다. 그건 죽음의 삶이에요. 나무들을 보세요. 파릇파릇 새로 움이 트지 않아요? 어제의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도 잠재된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묵은 수령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무가치한 일에 죽이지 마세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꽃처럼 새롭게 피어납니다.

이 초여름 새잎이 피어난 이 좋은 시절에 각자의 꽃과 잎을 피우면서 두루 행복하기를 빕니다.

(끝)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파멸 3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보편적인 이런 생활 규범이 바로 인간의 공통적인 윤리요 도덕이 아니겠는가. 이런 보편적인 생활 규범을 떠난다면 그때는 비인간의 길, 즉 파멸의 문으로 떨어지고 만다.

상식은 일단 건전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상식에만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틈에서 벗어나라고, 그 집착의 늪에서 뛰쳐나오라고 눈뜬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다.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의 실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112).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문득 〈성베네딕도의 수도 규칙〉이 떠오른다.

베네딕도는 5세기 이탈리아에서 서양 최초의 수도원을 개설한 분이다. 그의 수도 규칙은 서방 교회에서 최초의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 수도 생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8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그쪽 수도 생활을 지배하다시피 했다.

그의 규칙은 지나친 엄격성을 피하고 분별력과 중용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수도 규칙〉 제31장을 보면, ‘수도원의 경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도원의 경리는 형제들 중에서 지혜롭고, 성품이 완숙하고, 절제 있고, 많이 먹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욕을 하지 않고, 동작이 느리지 않으며, 낭비벽이 없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전체 공동체를 아버지처럼 돌볼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중략).”

절 소임에 견준다면 재무나 회계 혹은 원주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대중의 재산이나 급식 등 살림살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대식가이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부적합하다는 뜻. 왜냐하면 대식가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몫만이 아니고 남의 몫까지도 가로채서 꿀꺽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돈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의 실권을 맡긴다면, 그 집안은 언젠가 거털이 나고 말 거라는 경고다. 지당한 말씀.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어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물질적인 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웃과 나누어 쓸 줄 모르고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거라는 교훈.

생사윤회의 원인은 탐욕에 있다고 경전마다 한결같이 말한다. 탐욕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밖에 모

르는 닫힌 마음이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움짱 못하는 갇힌 마음이다.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음이 트여야 개체인 내가 전체인 나로 비약할 수 있다는 소리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란 원천적으로 내 것일 수 없다. 법계法界의 선물을 그 어떤 인연(경로)으로 인해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관리인으로서 운영 관리를 제대로 잘한다면 그 관리의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그 법계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쓰거나 묵혀 둔다면 당장 회수당하고 만다. 이런 도리가 바로 법계의 소식이요 우주 질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바로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항상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우는 뜻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의 내 자신을 읽으라는 소식이다. 교훈의 거울에 발가벗은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움직임이다.

우리가 경전을 한 귀절 한 귀절 음미하는 것은, 밖으로만 팔리던 눈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다. 안으로 거두어 들인 그 눈길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직 활자화 되지 않은 법계의 소리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여환해탈을 얻었을 따름이라

다시 천신이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잊지 말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해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보살의 오묘한 방편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거두어 주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해탈케 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선재는 이 말을 듣고 왕의 처소에 나아가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무염족왕은 다스리는 일을 마치고 선재의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 마주 앉아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먼저 내가 거쳐하는 궁전을 보라.”

선재동자는 왕의 말을 듣고 두루 살펴보았다.

그 궁전은 넓고 크기가 견줄 데가 없었으며,

모두 진기한 보배로 이루어져 있었다.

칠보로 담을 쌓아 주위를 둘러보고

온갖 보배로 누각을 장식했는데,

갓가지 장엄이 진정 아름답고 눈이 부셨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녀들이

공손히 시중을 들고 있었다.

왕이 선재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일 참으로 악한 업을 짓는다면

이런 과보와 이런 몸매와

이런 권속과 이런 부귀와 자재함을 누리겠는가.

나는 보살의 여환해탈如幻解脫을 얻었노라.

내 국토에 있는 중생 가운데

살생과 도둑질과 그릇된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조복하기 위해

악인으로 변신해,

온갖 죄악을 지어 갓가지 고통을 받는

장면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해서 저 나쁜 짓을 하는 중생마다

이를 보고는 무섭고 두려워하며

싫어하고 겁을 내어, 나쁜 업을 끊고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교묘한 방편으로써

저 중생이 열 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열 가지 착한 길에 머물러

항상 즐겁고 편안한 가운데

마침내 일체지一切智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로써

아직까지 한 중생도 해친 적이 없다.

내가 차라리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한순간이라도 모기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일지라도

괴롭히려는 생각을 낸 적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을 해하려 하겠는가.

사람은 복밭이니, 모든 선한 법을 능히 내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이 여환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생사가 없는 법의 지혜인 무생인無生忍을 얻어,

모든 세계가 허깨비 같고,

보살행이 다 요술과 같으며,

모든 세간이 그림자 같고,

모든 법이 꿈과 같은 줄을 안다.

그래서 실상의 결립 없는 법문에 들어가

제석천의 그물 같은 행을 닦고,

결립 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삼매에 들어가

다라니에 자유자재를 얻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묘광성妙光城이 있는데,

그곳 왕의 이름은 대광大光이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 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왕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떠나왔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향기로운 말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앱(APP) 사용해 보세요.

'구글 Play 스토어'와 '애플 App Store'를 통해 '맑고 향기롭게' 어플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과 법정 스님 저서와 말씀, 영상 자료를 모바일 웹뿐 아니라 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활동 참여 신청 및 문의, 1:1문의, 나의 후원 금액 확인 및 변경, 일시 후원의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2023년 제4기 맑고 향기롭게 대학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

5월 21일 제4기 대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1994년 창립 시부터 올해까지 3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총 717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고, 2020년부터는 대학생 장학사업을 펼쳐 올해까지 약 12억 9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매주 목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 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맑고 향기롭게 '자비의 연등'에 동참해 주신 후원금은 전액 결연 후원 대상자에게 특별 후원 물품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또한, 조리장에 냉난방 시설 및 작업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 2일(금)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대학생 텀플스테이 : 6월 23일(금)~ 6월 24일(토) / 송광사
- 책 읽기 필사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숲 기행 : 6월 6일(화) / 강원도 양구군 해안마을 DMZ 펀치볼 돌레길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글 나눔 사업
- 상담, 심리 치료,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 지대 아동, 청소년, 홀로 어르신 등 지원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저소득층 자활종독자 지원/보호 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등록기관)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아내바다 공유 사업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유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줄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하안거 결제,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 백중 아미타기도 하안거 90일 동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가족 축원과 선망 조상 및 낙태 영가,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7번의 천도재를 올려드립니다.

● 일시 : 6월 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0만 원(영가 10위까지)

● 초재는 7월 19일(수)부터 봉행됩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6월 3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하안거 결제,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보름기도	6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6월 3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6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CMS, 신용카드 정기 후원 금융 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중앙 모임-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직접 계좌이체 가능)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